

碩士學位論文

三島由紀夫의 『金閣寺』 研究

- 주인공의 美意識 形成過程 -

指導教授 金成俸



濟州大學校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朴 柳 椿

2003年 8月

三島由紀夫의 『金閣寺』 研究

- 주인공의 美意識 形成過程 -

指導教授 金 成 俸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2003年 5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提出者 朴 柳 椿

朴柳椿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인준함.

2003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국문초록>

三島由紀夫의 『金閣寺』 研究
- 주인공의 美意識 形成過程 -

朴 柳 椿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成 俸

本稿는 미시마 유키오의 대표작 『金閣寺』의 미의식을 究明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인물과 사건의 열개를 따라 주인공의 미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가는가를 탐색함으로써 『金閣寺』의 궁극적인 주제의식을 살펴본 것이다.

선천적 말더듬이인 주인공 미조구치의 美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의 “이 세상에서 金閣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는 언어적 울림에서 시작된 바, 그것은 개인의 구체적 체험과는 관계없는 철저한 관념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그 관념은 주인공의 의식에 절대적인 美로 군림하게 되는데, 그것은 주인공에게 美에 대한 동경과 소외의식을 동시에 갖게 한다.

주인공이 구체적인 대상과 만나서 나름대로의 미의식을 확립하게 되는 것은 우이코라는 여자를 접하게 되면서이다. 우이코를 통해서 세계를 거부하는 오염한 美와 함께 자신의 욕망을 일깨우는 관능미를 엿본 것이다. 또한 우이코의 배신을 통해서 자신이 그러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깨닫게 된다.

※ 본 논문은 2003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쓰루가와라는 친구를 통해서 밝은 세계를 동경하게 되나, 열등의식으로 인하여 위선적인 감정을 갖게 된 주인공은 金閣이 공습으로 불타 없어지길 열망하지만 무위로 끝나게 되어 실의에 빠진다. 가시와키라는 친구를 알게 되면서 인생에의 참여를 꿈꾸어 여자와의 관계를 가져보지만 번번히 金閣의 방해로 무산되는데, 이것은 金閣이 절제나 윤리의 상징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래서 金閣을 저주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인공의 미의식이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실의에 빠져 방황하던 주인공은 金閣방화를 결심하게 되는데, 金閣방화를 통해서 자신을 억압하던 절대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시에 그럼으로써 절대미와 합체하고자 하는 역설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것은 인식이 아닌 행위로서 美를 소유하겠다는 발상이거니와, 반면에 명백한 미의식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金閣의 美가 애초에 불안과 허무의 징조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진정한 미적 인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미적 형식의 발견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金閣寺』는 한 문제적 개인이 어떻게 미적 인식을 획득하고 대상과의 구체적 만남들을 통하여 미적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진정한 미의식이 어떻게 확립되어가는가 하는 과정을 탐구한 작품이라 하겠다.

목 차

국문초록	i
I. 序 論	1
II. 作品의 成立背景과 스토리	4
III. 美意識의 形成過程	7
1. 美의 認識	7
2. 구체적 美意識의 형성	12
3. 美意識의 混亂과 葛藤	19
4. 美意識의 解體와 새로운 美的 形式의 發見	29
IV. 結 論	38
참고문헌	41
Abstract	44

I. 序 論

미시마유키오(三島由紀夫: 이하 미시마)(1925 - 1970)는 일본 전후 문단이 낳은 기린아이다.

그는 『假面の告白』, 『金閣寺』, 『憂国』, 『豊饒の海』 등의 작품으로 일본 전후 문학의 새로운 소설 세계를 확립하여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노벨 문학상 후보에 거론됨으로써 당대의 문학적 총아로 떠올랐다.

그에 대한 문학적 평가는, 예컨대 도날드 킨의 “미시마는 전쟁이 낳고 평화가 키워 낸 일본 최초의 국제적 작가이며, 동서양 문화를 교묘하게 구사한 놀라운 작가이다”¹⁾라는 극찬에서부터 미시마 문학은 사기라는 사이덴스티커²⁾의 혹평³⁾에 이르기까지 찬반 양론의 대립이 극한적이거나, 어쨌거나 이것은 미시마 문학이 그만큼 논의의 소지가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미시마 문학에 있어서 특히 『金閣寺』는 가장 문제적이라 할 수 있는데, 미시마 자신이 이 작품에 대해 “겨우 나는 나의 기질을 완전히 이용하여서 그것을 사상으로 정화(晶化)시키고자하는 시험에 안심해서 되돌아

1) 도날드 킨의 해설, 『가면의 고백』, 미시마유키오, 양윤옥 옮김, 동방 미디어, 1998, p.239 참조.

2) Edward Seidensticker (1921 ~) : 콜롬비아, 하버드, 도쿄 대학에서 일본문학 전공. 현재 콜롬비아 대학 명예교수. 三島由紀夫, 谷崎潤一郎, 川端康成 등 일본의 대표적인 현대작가들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여 전세계에 소개.

『雪國』, 『原氏物語』 번역. 특히 川端康成의 『雪國』이 노벨문학상 수상에 그의 영어 번역본이 크게 공헌.

3) 김윤식, 『문학적 죽음과 정치적 죽음』, 『한일 문학의 관련 양상』, 일지사, 1974, p.258.

가, 그것은 그럭저럭 성공해서 나의 사상은 작품의 완성과 동시에 완성시켜, 그래서 죽어 버린다.”⁴⁾라고 자평하여 『金閣寺』에 대한 긍지와 가치를 부여하기도 했지만, 이 작품이 미시마 문학의 핵심 테마인 ‘美’에 관해서 섬세하고도 집요하게 파헤쳐 들어갔기에 많은 논자들에 의해서 비상한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미시마 문학이 주지하다시피 일본 낭만파의 영향 아래, 많은 경우 어떤 식으로든 유타주의에 傾倒되었거니와, 『金閣寺』라는 작품의 성립 배경이나 주제 의식이 ‘美’에 바쳐져 있기에 『金閣寺』의 美意識을 살펴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시마 문학의 중요한 키워드를 파헤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본고가 의도하는 바가 여기에 있다.

『金閣寺』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中村光夫에 의하면 “非文學이 중형무진 하는 일본 문단에 문학 작품의 A, B, C를 구현한, 非文學에 대치되는 문학 작품”⁵⁾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래 다양한 견해들이 끊임없이 덧붙여져 왔다. 주제적 접근을 중심으로 몇 개의 견해들을 살펴보면 이 작품이 전후의 사회 개혁, 특히 패전과 점령에 의해 생긴, 일본의 젊은이들의 인식의 한 단면인 니힐리즘을 표명한 것⁶⁾이라든가, 청춘의 결별을 다뤘다든지⁷⁾,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⁸⁾이나 작자 자신의 비극적 교만⁹⁾을 드러낸 것이라는 견해들이 대표적이다.

그것들은 나름대로 『金閣寺』의 이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고 합당한 평가들로서 제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연구들

4) 磯田光一, 『三島由紀夫-日本文学全集82』, 集英社, 1983, p.426.

5) 中村光夫, 「『金閣寺』について」, 秋山駿·他, 『三島由紀夫』, 小学館, 1990, p.132.

6) 武田勝彦, 「金閣寺について」, 『日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 学灯社, 1966.10, p.153.

7) 中村光夫, 『金閣寺』, 秋山駿·他, 『三島由紀夫』, 小学館, 1990, p.132.

8) 三枝康高, 「『金閣寺』作品分析」, 『三島由紀夫』, 有精堂, 1975, p.78.

9) 三好行雄, 「背徳の倫理」『作品論の試み』, 至文堂, 1978, p.402.

은 작가의 전기적 사실이나 사회·역사적 배경과 관련하여 주제를 도출하는 외재적 비평 방법을 원용한 것이다. 작품이 그것을 낳게 한 주체와 시대적 배경과 전혀 무관할 수가 없고 서로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그 의미를 추출하는 것은 그것대로 타당한 가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재적 접근 방법은 자칫하면 작품을 작가나 시대의 부산물로 오인케 하는 독단에 빠질 수가 있다. 이에 本稿는 작품을 하나의 독립된 유기체로 보고 텍스트 자체의 구조와 흐름 안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는 내재적 접근 방법에 의해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金閣寺』의 인물과 사건의 관련성을 따져 궁극적인 주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텍스트는 新潮社版 『三島由紀夫全集 6』(2001)을 사용했다.



II. 作品의 成立背景과 스토리

『金閣寺』라는 작품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먼저 그 성립 배경과 스토리의 골격을 살펴보기로 하자.

1956년(昭和31년)<新潮>에 연재된 이 소설은 그로부터 6년 전에 일어난 金閣寺의 실제 방화 사건을 모델로 하고 있다. 鹿苑寺의 徒弟로 있던 林養賢이라는 이상성격자의 충동적 행위에 의하여 저질러진 金閣 방화 사건은 당시 전 일본을 충격으로 몰고 간 희대의 사건이었다. 소설가가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그것도 전사회적인 반향과 놀라움의 대상이었던 사건을 제재로 작품을 쓴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시마가 이 사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작품화한 핵심 동기는 방화범인 林養賢이 진술한 방화 동기중의 하나인 “美가 무섭고, 미웠다.”라는 말에 촉발된 것이다. 10) 논자들이 실제 인물인 林養賢과 작품의 주인공 미조구치(溝口: 이하 미조구치)와의 관련성의 유사점을 들어 자주 비교하곤 하나, 그것은 호사가들의 취향이 빚어낸 실증적 徒勞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시마는 이 소설을 사회소설로 쓴 것이 아니고, 또는 범인의 방화 동기를 추적하고자 하는 심리적 소설도 아니고, 미시마가 평소에 추구해 온 美意識을 드러내기 위하여 金閣 방화 사건을 하나의 상징적 제재의 차원으로 끌어들인 관념소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金閣 방화 사건과 방화범인 林養賢이라는 인물의 실재성은 이 작품에서 아무래도 좋은, 즉 가공의 사건이라도 무방한 제재적 의미 이외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金閣寺』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제재로 취하

10) 西本匡克, 『『金閣寺』をめぐって』, 『日本文学 解釈と鑑賞』, 至文堂, 1992. 9, p.171.

여 허구적 진실을 추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이 작품은 일인칭 주인공 시점에 의해 씌어진 소설이다. 그러니까 나레이터가 주인공인 자기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형식인 것이다. 주인공 미조구치는 쓸쓸한 바닷가 마을 작은 절의 주지인 중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선천적으로 말더듬이인데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다. 말더듬이라는 불구적 조건은 미조구치를 외부 세계와 장벽을 쌓고 살아가게 한다. 아버지는 미조구치가 어렸을 때부터 金閣寺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고 그로 인하여 소년인 미조구치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金閣에 대한 동경과 美에 대한 선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것은 미조구치로 하여금 인생에서 처음 맞닥뜨린 문제를 美라고 생각하게 하는데, 연정을 품었던 우이코(有爲子:이하 우이코)라는 여자의 거부와 탈영병 사건과 관련한 有爲子の 죽음이라는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美와 인생에서 동시에 소외되었다는 자각을 갖게 한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鹿苑寺의 도제승이 된 미조구치는 그가 어렸을 적부터 꿈꾸어온 金閣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전쟁 말기 金閣이 공습으로 불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의해 자신과 金閣과의 동질성을 강렬하게 느끼게 되나, 그 꿈은 무산되고 종전과 함께 건재한 金閣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金閣과의 관계에 균열을 갖게 된다. 같은 도제승인 쓰루가와(鶴川: 이하 쓰루가와)와 사귀면서 미조구치는 그의 밝은 세계에 이끌리게 되고 그를 자신의 陽晝로 여기게 된다. 鹿苑寺의 주지승인 노사(老師: 이하 노사)의 호의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 미조구치는 심한 안짱다리인 가시와키(柏木: 이하 가시와키)를 알게 되고 육체적 불구라는 동질성으로 인해 그를 가까이 하게 된다. 가시와키는 미조구치를 인생쪽으로

11) 田中美代子, 『美の変質』, 『三島由紀夫・美とエロスの論理』, 有精堂, 1991, p139.

이끌어가면서 악의 가능성을 가르친다. 미조구치는 가시와키에게 이끌려 두 번의 여자와의 육체 관계에서 인생에의 참여를 시도했으나 金閣의 환영의 방해로 실패하게 된다. 金閣의 억압에 반발하는 미조구치는 逆으로 金閣의 지배와 소유를 꿈꾸게 된다.

어느 날 우연히 노사의 불륜을 목격하게 된 미조구치는 후계자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고 金閣寺를 뛰쳐나와 방황하다가 서부 일본의 바닷가에서 자신의 불행과 암울한 사상, 그리고 추악함과 힘의 원천을 느끼고 金閣을 불태워 버리겠다는 상념에 휩싸이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절로 돌아오게 된 미조구치는 어느 날 새벽 스스로가 영원불멸의 ‘美’의 상징으로 여겼던 金閣을 방화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함께 焚死를 결행하려다 생각을 바꿔 도주하고 불타오르는 金閣을 바라보며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다. 이상이 대강의 줄거리이다.



Ⅲ. 美意識의 形成過程

1. 美의 認識

『金閣寺』는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자주 금각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라는 서두로 시작된다. 이 서두는 일견 평범해 보이지만 소설 전체로 볼 때 아주 의미심장하다. 주인공 미조구치에게 깊숙이 새겨진 金閣에 대한 미적 인식은

사진이나 교과서에서 현실의 금각을 종종 대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오히려 아버지가 들려준 금각의 환상이 눈에 어른거렸다. 아버지는 결코 현실의 금각이 황금빛으로 찬연히 빛나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금각만큼 아름다운 것은 지상에는 다시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금각이라는 글자라든가 그 음운에서 내 마음이 그려낸 금각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写真や教科書で、現実の金閣をたびたび見ながら、私の心の中では、父の語った金閣の幻のほうが勝を制した。父は決して現実の金閣が、金色にかがやいて
いるなどと語らなかった筈だが、父によれば、金閣ほど美しいものは地上になく、又金閣
というその字面、その音韻から、私の心が描きだした金閣は、途方もないものであった
。)(p10)

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美觀念에 의해서 金閣은 지상의 최고의 美라는 것으로 구체적 대상을 인지하기도 전에 선형적으로 주입된 것이다. 아버지의 말이 미조구치의 마음속에서 ‘美’에 대한 환상을 낳고 그것이 독특한 색깔로 변모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조구치의 美意識 인식은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에서 구체적으로 획득된 것이 아니라 “金閣 만큼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金閣’이라는 음운의 울림과 ‘金’이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원래 인식이란 주지하다시피 주체가 대상에 대하여 반응하고 수용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미적 인식 역시 미적 대상과 그것을 감지하는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성립됨은 말할 것도 없다. 인식론에 의하면 주체가 대상을 감각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그 존재에서 미적 인식을 획득하는 것¹²⁾인데, 인간의 경우 다른 동물과 달리 관념적 사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감각 대상이 없이도 미적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에게 있어 미적 인식은 그만큼 관념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미조구치의 미적 인식의 태동 역시 스스로의 구체적 경험을 통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언어에 의하여 형성된 관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미조구치가 아버지에 의해서 유년 시절 ‘金閣’의 美를 들었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서 말을 배우며 어떤 가치의 믿음을 맹목적으로 갖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 부모, 특히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력자이면서 보호자로서 최고의 믿음을 담보하는 존재라는 것은, 굳이 정신분석학적 논리를 빌어오지 않더라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미조구치의 미적 인식은 일종의 절대자로서의 아버지의 교육에 의해 형성된 믿음이라고 하겠다. 미조구치가 ‘金閣’이라는 음운과 ‘金’의 글자에서 金閣의 美를 떠올렸다는 것은, 어린아이 또는 단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金’의 이미지가 주는 최고의 가치 또는 ‘king’ (‘金’의 일본어 발음이 ‘king’이다)이라는 음운에서 느껴지는 최고의 가치에 대한 믿

12) 요하네스 헤센, 이강조 옮김, 『인식론』, 서광사, 1986, p41

음인 것이다.

그러니까 유년 시절의 미조구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金閣’이라는 실제적 대상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美’가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미조구치는 어떤 아름다운 구체적인 대상과 맞닥뜨릴 때마다 ‘金閣’의 아름다움에 비견하게 되는 것이다.

저 멀리 논바닥이 햇살에 반짝이는 걸 보거나 하면 그건 보이지 않는 금각의 그림자라고 생각했다. ………그 산골짜기로 해가 떠오른다. 나는 산 사이로 퍼져 오르는 아침 햇살 속에서 금각이 아침 하늘에 우뚝 솟아 있는 것을 보곤 했다.

(遠い田の面が日にきらめいているのを見たりすれば、それを見えざる金閣の投影だと思った。……その峠のあたりから日が昇る。私は山あいの朝陽の中から、金閣が朝空へ聳えているのを見た。)(p.10)

자그마한 여름 꽃들을 보고, 그것이 새벽 이슬에 젖어 희미한 빛을 내뿜는 것 같은 순간에는 그것이 금각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또 구름이 산 넘어 저쪽 하늘에 잔뜩 몰려서 우리를 머금고 암담해 있을 때 그 가장자리만 금빛 테두리를 하고 빛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장엄함이 곧 금각을 생각해 했다. 마침내는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마음속으로 ‘금각처럼 아름답다.’고 형용하기에까지 이르러 있었다

(小さな夏の花を見て、それが朝露に濡れておぼろな光りを放っているように見えるとき、金閣のように美しい、と私は思った。また、雲が山のむこうに立ちほだかり、雷を含んで暗澹としたその縁だけを、金色にかがやかせているのを見るときも、こんな壮大さが金閣を思わせた。はては、美しい人の顔を見ても、心の中で、「金閣のように美しい」と形容するまでになっていた。)(p.28)

아침 햇살의 아름다움이나 반짝이는 들판, 또는 새벽 이슬에 젖은 여름 꽃, 우리를 머금고 있는 장엄한 하늘 등 모든 아름답다는 것에서 미조구

치는 ‘金閣’의 美를 느낀다. 이것은 엄격하게 말한다면 전도된 의식이다. ‘金閣’은 아직 접해보지 않은 미지의 것이고, 아침 햇살이나 들판은 현재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생생하게 그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대상인 것이다. 그럼에도 미조구치는 미지의 것을 기준으로 현재의 미를 판단하는 것이다. 미조구치에게 있어서 ‘美’란 그러니까 미지에의 동경을 저절로 함유하는 것이다. ‘金閣’을 현실에서 맞닥뜨리기 전에, 미조구치는 ‘金閣’의 이미지를 바다의 예감 혹은 바다의 환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금각은 여기저기 온갖 곳에 나타났으며 그러면서도 그것을 실제로는 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고장에 잇닿아 있는 바다나 매한가지였다. 마이즈루 만은 시라쿠 마을의 서쪽으로 일 마일 반 정도 가면 있는데, 산에 가로막혀서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고장에는 언제나 바다의 예감 같은 것이 감돌고 있었다.

(こういう風に、金閣はいたるところに現われ、しかもそれが現実に見えない点では、この土地における海とよく似ていた。舞鶴湾は志楽村の西方一里半に位置していたが、海は山に遮ぎられて見えなかった。しかしこの土地には、いつも海の予感のようなものが漂っていた。) (p.10)

나에게는 금각 그 자체도 시간의 바다를 건너 온 한 척의 아름다운 배처럼 여겨졌다. 미술 서적에 적힌 대로 ‘벽이 적은 바람맞이 건축’은 흡사 배의 건축법처럼 연상되면서, 이 복잡한 삼층집 모양을 한 배가 떠있는 뭇은 바다의 상징처럼 생각되는 것이었다.

금각은 술한 밤을 건너왔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끝없는 항해, 그리고 낮 동안 이 이상한 배는 시치미를 떼고 닻을 내리고서 사람들의 실컷 구경하도록 내버려두다가는 밤이 되면 또 다시 주위의 어둠에 의지해서 그 지붕을 돛처럼 잔뜩 부풀려 가지고 출범하곤 하는 것이다.

(私には金閣そのものも、時間の海をわたってきた美しい船のように思われた。美術書が語っているその「壁の少ない、吹ぬきの建築」は、船の構造を空想させ、この複雑な三層の屋形船が臨んでいる池は、海の象徴を思わせた。

閣はおびたしい夜を渡ってきた。いつ果てるともしれぬ航海。そして、昼の間というもの、このふしぎな船はそしらぬ顔で碇を下ろし、大ぜいの人が見物するのに委せ、夜が来ると周囲の闇に勢いを得て、その屋根を帆のようにふくらませて出帆したのである。)(p.27)

바다가 가지는 동경과 미지의 세계를 향한 향해를 연상하듯 ‘金閣’은 미조구치에게 있어서 하나의 비밀스런 美에 접근하는 절대적인 존재의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조구치에게 인식된 美는 감각적 미적 대상을 넘어선 상상력에 이끌려 무한한 것으로 향하는 초감각적 가치이념으로서의 美를 의미한다.

따라서 ‘金閣’의 美는, 미조구치에게 있어서 하나의 지향적 美인 셈이다. 그것은 미조구치가 ‘金閣’의 아름다움을 상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美’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의식을 제기하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내가 인생에서 최초로 부딪혔던 난제는 미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나의 아버지는 시골 태생의 소박한 중이었고 말씀씨도 없어서 그저 ‘금각’만큼 아름다운 건 이 세상에 다시없다.’고만 나에게 일러 주셨다. 나는 내가 모르는 곳에 이미 미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불만과 초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가 분명히 거기 존재해 있다면 나라는 존재는 미에서 소외된 것이다

(私が人生で最初にぶつかった難問は、美ということだっ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父は田舎の素朴な僧侶で、語彙も乏しく、ただ「金閣ほど美しいものは此世にない」と私に教えた。私には自分の未知のところ、すでに美というものが存在しているという考えに、不満と焦躁を覚えずにはいられなかった。美がたしかにそこに存在しているな

らば、私という存在は、美から疎外されたものなのだ。)(p.27~p28)

인생에서 최초로 부딪친 문제가 ‘美’라니? 이것은 상당히 범상치 않은 일임에 틀림없으나 보다 더 문제적인 것은 미조구치의 소외의식에 있다. 인물의 설정 자체가 ‘마성적 성격의 문제적 개인’¹³⁾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렇다 해도 어린아이에게 있어 ‘美’에 대한 소외의식이라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조구치의 소외의식은, ‘美’가 아버지의 가르침과 언어적 울림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뿐 아직 그것의 뚜렷한 실체성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는 확실하게 인지된 ‘美’가 미조구치에게는 그 절대성은 느끼면서도 막연한 안개 속의 신기루와도 같이 붙잡을 수 없는 대상이기에 미조구치는 소외의식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조구치에게 있어 美意識은 분명히 싹텄으나 아직 그 구체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봐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美意識의 형성

미조구치의 美意識이 자기 나름의 인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띠게 되는 것은 우이코 사건을 통해서이다. 이 소설 속에서 우이코는 주인공이 최초로 관심을 갖는 여성이면서 평생토록 원초적 이미지로서의 환영으로 주인공의 여성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대상이다. 우이코에 대한 미조구치의 입장이 사랑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정신적 차원의 막연한 그리움만이 아니라 일정한 육체적 감각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이코는 매우 아름답고 누구에게나 귀여움을 받는

13) 게오르크 루카치, 『소설의 이론』, 반성환 역, 심설당, 1985, p.113.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조구치의 인식이다.

어느 여름날 밤, 나는 우이코의 몸을 생각하며 암울한 공상을 하느라 잠을 설쳤다.……우이코의 몸을 그리워 한 건 그날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 이따금 그런 생각이 들곤 하였던 것이 점차로 굳어지면서 우이코의 몸은 희고, 탄력이 있고, 어둠침침한 그림자 속에 잠겨있는 향긋한 어떤 肉의 모양으로 응결되어 갔던 것이다. 나는 내 손가락이 닿는 순간의 따스함을 느꼈고 그 손가락에 거슬러 올라오는 탄력이라든가 꽃가루같은 내음을 생각했다.

(ある晩、有為子の体を思って、暗鬱な空想に耽って、ろくに眠ることのできなかつた。……有為子の体を思ったのは、その晩がはじめてではない。折にふれて考えていたことが、だんだんに固着して、あたかもそういう思念の塊のように、有為子の体は、白い、弾力のある、ほの暗い影にひたされた、匂いのある一つの肉の形で凝結して来たのである。私はそれに触れるときの自分の指の熱さを思った。またその指にさからってくる弾力や、花粉のような匂いを思った。)(p.16)

말더듬이인데다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타인에 대해 폐쇄된 의식과 열등감을 갖고 있던 미조구치가 이상하게도 우이코에게는 짙은 연정과 함께 육체적 욕망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말을 바꾸면 미적 대상에 대해 얼마간의 감각적 자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미조구치는 뚜렷한 의도도 없이 감각이 이끄는 대로 새벽녘에 우이코에게 접근하는 용기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지향은 대상에 대한 탐색도 없고 대상과 자기와의 연결의 점점의 끈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무위로 끝나고 미조구치는 오히려 외계와의 단절만을 아프게 경험하게 된다.

그때 나는 내가 돌이 되어 버린 것을 깨달았다. 의지도, 욕망도, 모두가 화석이 되어 버린 것이다. 바깥 세계는 내 마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또다시 내 둘레에 존재해 있었다.

(そのとき、私は自分が石に化してしまったのを感じた。意志も欲望もすべてが石化した。外界は、私の内面とは関わりなく、再び私のまわりに確乎として存在していた。)(p.17)

미조구치가 출근하는 우이코의 자전거 앞으로 뛰어나갔을 때의 상황이다. 무얼 어떻게 한다는 생각 없이 무의식적인 감각의 지향에 의해 돌발적으로 일어난 행위이나 순간 미조구치는 화석처럼 굳어버려야 했던 것이다. 미조구치에게 아름다움의 대상인 우이코는 엄청난 중압감을 가지고 다가왔으며, 그로 인해 미조구치는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이 존재하는 현실을 감득하고 그것에 대해 무의미하고도 캄캄한 단절을 느끼는 것이다. 문제는 미조구치가 말더듬이라는 핸디캡 때문에 말에 신경이 쏠려서 행위를 차단 당했다고 생각하는 인식이다. 물론 우이코는 “무슨 짓이야! 말더듬인 주제에.”라고 매몰차게 쏘아 부치고 있지만, 미조구치의 실패는 자신의 감각이 행동으로 옮겨가지 못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제나 처럼 나는 어색한 자리를 구해주는 건 오직 말뿐이라는 것을 생각해 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특유의 오해였다. 행동을 필요로 할 때 나는 언제나 말에 신경이 쏠렸던 것이다. 내 입에서 말이 매끄럽게 나와주지 않으니까 그것에 정신을 빼앗겨서 정작 행동은 잊게 마련이었다. 나는 찬란한 빛깔을 지닌 행동은 늘 찬란한 언어를 동반해야한다고 생각했었다.

(言葉がおそらくこの場を救う只一つのものだろうと、いつものように私は考えていた。私特有の誤解である。行動が必要なときに、いつも私は

言葉に氣をとられている。それというのも、私の口から言葉が出にくいので、それに氣をとられて、行動を忘れてしまうのだ。私には行動という光彩陸離たるものは、いつも光彩陸離たる言葉を伴っ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のである。)(p.18)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하다. 뒤에 가시와키가 세계를 변모시키는 것은 오직 인식뿐이라는 주장을 한데 대해 미조구치는 행위만이 세계를 변모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는데, 그러한 연원이 여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우이코는 미조구치에게 있어서 ‘美’에 대해 나름대로의 경험적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 우이코가 탈주병인 애인을 돕다가 체포되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은 미조구치의 미적 인식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주게 된다. 우이코가 헌병에게 잡혀서 탈주병의 은신처를 추궁 받았을 때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완강한 침묵을 지키는 순간의 모습에 미조구치는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된다.

나는 지금까지 이처럼 강렬하게 거부하는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내 얼굴이야말로 외부 세계로부터 거부당한 얼굴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우이코의 얼굴은 오히려 세계를 거부하고 있었다. 달빛은 그녀의 이마와 눈, 콧등과 뺨 위로 흐르고 있었지만, 움직임이 전혀 없는 얼굴은 그냥 달빛에 씻기고 있을 뿐이었다. 조금이라도 눈을 움직이거나 입을 움직인다면, 그녀가 거부하려는 세계는 그걸 신호로 해서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 같았다.

(私は今まで、あれほど拒否にあふれた顔を見たことがない。私は自分の顔を、世界から拒まれた顔だと思っている。しかるに有為子の顔は世界を拒んでいた。月の光りはその額や目や鼻筋や頬の上を容赦なく流れていたが、不動の顔はただその光りに洗われていた。一寸目を動かし、一寸口を動かせば、彼女が拒もうとしている

世界は、それを合図に、そこから雪崩れ込んで来るだろう。(p.20~p.21)

여기서 우이코의 미적 핵심은 ‘세계에 대한 거부’에 있다. 미조구치에게 비친 우이코의 거부의 태도는 조금의 움직임에도 세계가 온통 무너질 것 같은 절대성을 띠고 있다. 그것은 앞에서 미조구치가 우이코에게 말더듬이로 인해 거부당했을 때에 느꼈던 현실적 좌절이나 모멸감과 성격은 달리하며 오히려 미조구치로 하여금 우이코의 ‘美’에 경도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작품에서 몇 번의 계기에 걸쳐 미조구치와 일정한 관계를 맺게 되는 여성들이 한결같이 우이코의 영상과 관련해서 인식된다는 것이 이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조구치로 하여금 우이코의 ‘美’에 사로잡히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앞서도 말했듯이 우이코가 세계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우이코의 존재는 ‘美’의 화신으로 설정된 金鬮과 일치되는 맥락을 띤다. 金鬮과 우이코는 동시에 ‘내부에 어둡고 차가운 어두움을 지닌 채 주위의 세계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조구치에 있어 ‘美’란 세계를 거부하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금기와 오염한 절대성을 함유하는 것이다. 이것은 逆으로 보면, 신체적 환경적 장애 때문에 타인과 현실로부터 소외당해 온 미조구치로서 그러한 세계와 현실을 온통 뒤집어 거부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심리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이코는 결국 탈주병의 은신처를 지목하는데 앞장섬으로써 미조구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다. 미조구치는 이것을 명백하게 ‘배신’으로 규정하고 순간 당혹스러움을 갖게 되나 오히려 ‘우이코의 배신이 지닌 산뜻한 아름다움’에 새롭게 도취한다.

달과 별, 밤하늘의 구름, 뽀족뽀족한 삼나무 숲의 능선으로 하늘과 맞닿아 있는 산, 얼룩진 달빛, 뽀얗게 떠오르는 건축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이코의 배신이 지닌 산뜻한 아름다움이 나를 취하게 했다. 그녀는 외롭게 가슴을 펴고 이 흰 돌계단을 올라갈 자격이 있었다. 그 배신은 별이나 달이나 삼나무 숲이나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니까 우리들 증인과 함께 이 세계에 살아야 하고 이 자연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녀는 우리들의 대표자로서 그곳으로 올라갔던 것이다. 나는 숨을 몰아쉬면서 생각했다. ‘배신함으로써 마침내 그녀는 나까지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야말로 내 것이다.’

(月や星や、夜の雲や、鉾杉の稜線で空に接した山や、まだらの月かげや、しらじらとうかぶ建築や、こういうものの中に、有為子の裏切りの澄明な美しさは私を酔わせた。彼女は孤りで、胸を張って、この白い石段を昇ってゆく資格があった。その裏切りは、星や月や鉾杉と同じものだった。つまり、われわれ証人と一緒にこの世界に住み、この自然を受け容れることだった。彼女はわれわれの代表者として、そこを昇って行ったのである。息をはずませて、私はこう思わずにはいられなかった。『裏切ることによって、とうとう彼女は、俺をも受け容れたんだ。彼女は今こそ俺のものなんだ』

(p.23~p.24)

이것은 미조구치에게 있어 ‘美’에 대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金閣’의 美가 금기적 절대성을 띠고 있는데 반해, 우이코에게서는 금기와 함께 위반의 가능성을 엿보게 된 것이다. 말을 바꾸면 우이코를 통해서 ‘美’에 대한 자신의 참여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인생)과 대립적으로만 느껴졌던 ‘美’가 현실과 삼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우이코에 대해 느꼈던 육체적 관능성 때문이라고 하겠다. 인간의 내적 삶의 한 양식인 에로티즘¹⁴⁾은 금기와 위반의 원리에 의해 성립되

는데, 인간이 관념적으로 추구한 숭고한 미적 대상이 현실적 육체성을 띠게 됨으로써 구체화된 미적 인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적 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절대미란 더없이 숭고한 것이겠지만 그것은 현실감이 없기에 신기루와도 같은 것이며, ‘美’의 구체적 현현을 위해서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美’에 대해 감각적 육체성을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감각적 육체성으로 가게 되면 ‘美’의 본질을 놓치고 천박하게 된다. 여기에서 금기와 위반의 긴장된 역학이 필요한 것이다.

우이코 사건을 통해서 미조구치는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막연하게나마 ‘美’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인식을 확립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새로운 인식이란 기존의 인식을 덮어둔 것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아버지에 의해 형성된 미적 인식에 자신의 경험이 덧붙여져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경험과 욕망에 의한 자각이라는 점 때문이다.

14) 조르쥬 바타이유 저, 조한경역, 『에로티즘』, 민음사, 1989, p.16.

3. 美意識의 混亂과 葛藤

아버지가 죽은 뒤 미조구치는 아버지의 유지에 의해 鹿苑寺에서 도제 생활을 하게 된다. 그것은 그가 동경해 하지않았던 절대미의 상징인 金閣과 함께 생활함을 뜻한다. 미조구치의 감격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다음의 찬탄에서 잘 알 수 있다.

‘금각이여, 마침내 그대 곁으로 와서 살게 되었다.’하고 나는 비질하던 손을 멈추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곤 하였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좋다. 나를 친구로 맞아 주고 그대의 비밀을 보여 다오. 한 발짝 단 한 걸음만 다가서면 확연할 것 같은 그대의 아름다움을 능가할 존재는 없다. 왜. 어째서 이토록 아름다워야 하는가?’

(『金閣よ。やっとあなたのそばへ来て住むようになったよ』と、私は箒の手を休めて、心に呟くことがあった。『今すぐでなくてもいいから、いつかは私に親しみを示し、私にあなたの秘密を打明けてくれ。あなたの美しさは、もう少しのところではっきり見えそうでいて、まだ見えぬ。私の心象の金閣よりも、本物のほうがはっきり美しく見えるようにしてくれ。又もし、あなたが地上で比べるものがないほど美しいなら、何故それほど美しいのか、何故美しくあらねばならないのかを語ってくれ』(p41~p42)

그러나 金閣의 아름다움은 전란의 현실 속에서 불안을 바탕으로 빛나는 것이었고 미조구치는 金閣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 무렵 그는 함께 도제 생활을 하는 쓰루가와와 교분을 맺게 되는데, 쓰루가와는 외모나 환경 등 여러 면에서 미조구치와는 대조되는 밝은 성격의 인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쓰루가와는 미조구치의 말더듬이를 조롱

하지도 않고 충실하고도 진지한 태도로 미조구치를 받아들이려고 한다. 미조구치가 쓰루가와를 자신의 陽畫로 여길 만큼 쓰루가와는 미조구치의 어두운 마음을 투명하고 빛나는 감정으로 바꿔주는 연금술사와도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미조구치는 늘 모멸감에 의해서 자각되곤 하는 말더듬이를 쓰루가와의 다정함으로 해서 떨쳐내게 된다. 미조구치는 비로소 ‘그때 본 金閣의 모습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만큼 ‘감정의 조화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시적이거나 미조구치가 자신과 대립적으로만 여겨졌던 밝은 세계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조구치의 의식은 밝은 세계와 동화되지는 못하고 서로 다른 반대의 감정도 표면적으로는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에 빠진다는 것이 문제이다.



쓰루가와는 이따금 납으로 황금을 만들어내는 연금술사 같았다. 내가 사진의 음화라면 그는 그 양화였다. 한 차례 그의 마음에 여과되면 내 혼탁한 어두운 감정은 한 가닥 남김 없이 투명하고 빛나는 감정으로 바뀌는 것을 나는 벌써 몇 번이나 경험하지 않았던가! 내가 더듬거리면서 주저하고 있는 동안에 쓰루가와의 손길은 내 감정을 뒤집어서 바깥 세계에 전달해 버린다. 이러한 놀라움을 통해서 내가 배운 건 이 세상 최악의 감정도 최선의 감정과 그리 다를 게 없다는 것이며, 그 효과는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살의라든가 자비심도 겉보기에는 서로 그리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었다.

(時には鶴川は、あの鉛から黄金を作り出す錬金術師のようにも思われた。私は写真の陰画、彼はその陽画であった。ひとたび彼の心に濾過されると、私の混濁した暗い感情が、ひとつのこらず、透明な、光りを放つ感情に変わるのを、私は何度おどろいて眺めたことであろう！私が吃りながら躊躇らっているうちに、鶴川の手が、私の感情を裏返して外側へ伝えてしまう。これらの愕きから私の学んだことは、ただ感情にとどまる限りでは、この世の最悪の感情も最善の感情と逕庭のないこと、その効果は同じであ

ること、殺意も慈悲心も見かけに変わりはないこと、などであった。(p.64~p65)

이것은 미조구치가 ‘위선’의 兩價感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양가감정은 자신이 숭배하고 동경하는 金閣의 ‘美’가 공습에 의해 파괴되기를 바라는 모순으로 나타난다. 아마도 그것은 밝고 이상적인 세계와 자신이 결코 동일화 될 수 없는데서 생겨난 반작용으로 아름다운 가치와 추함이 한꺼번에 과멸함으로써 서로 동일화될 수 있다는 이상심리적 표출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는 ‘美라는 것을 추구하다보면 인간은 암흑 사상에 저도 모르게 부닥치게 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파국을 꿈꾸는 것이다.

나는 재난을, 대파국을, 인간적 비극을 인간도, 물질도, 추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모두 동일한 조건 아래 놓고 짓밟게 버리는 거대한 압착기 같은 것을 꿈꾸고 있었다.

(私はただ災禍を、大破局を、人間的規模を絶した悲劇を、人間も物質も、醜いものも美しいものも、おしなべて同一の条件下に押しつぶしてしまう巨大な天の圧搾機のようなものを夢みていた。)(p.55)

‘美’와 현실의 어느 쪽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던 미조구치로서는 鹿苑寺의 도제 생활로 金閣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쓰루가와로 인해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엿볼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열등감과 소외의식이 그러한 역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쓰루가와를 통하여 마음 한켠에 숨어 있는 밝은 세계로의 진입 욕망과 그렇지 못하는 자신의 존재 조건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미조구치의 심리상태가 이러한 모순율로 드러난 것이다.

田中美代子は 미조구치의 악의 심리를 두고 “열등의식이란 때에 따라서 완벽하게 이상화되어진 자화상의 반작용이고 모순적 나르시즘의 표명일 것이다. 그는 차라리 열등감으로 인해서 자기를 특수화하기 위해 악으로 무장하는 것이다.”¹⁵⁾라고 했는데 나중의 미조구치의 위악적 행동과 金閣 방화는 물론이거니와, 이미 이 무렵에 그러한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쨌거나 金閣은 불타지 않고 전쟁은 끝난다. 결국 미조구치의 바램은 무위로 끝나고 그는 “金閣과 나와 관계는 이제 끊어져 버렸다. 이것으로 나와 金閣이 같은 세계에 살고 있다는 몽상은 무너져 버렸다”고 절망하게 된다. 사람들은 패전을 두고 가치의 모든 붕괴 때문에 절망했지만 미조구치는 그와는 반대로 가치의 영원한 소생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다. 그는 ‘저주스러운 영원’의 소리를 들었고 그것이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는 ‘일상 속에 녹아 흡수되어 있는 불교적인 시간의 부활’에 지나지 않았기에 절망한 것이다. 무슨 말이나 하면, 미조구치로서는 미적 대상 또는 현실과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 어떤 식으로든 변전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다.

오타니 대학에 진학하게 된 미조구치는 새로운 친구인 가시와키를 만나게 된다.

가시와키는 심한 안짱다리로서 그러한 신체적 결함의 동질성으로 인하여 미조구치와 급속도로 가깝게 되고, 쓰루가와와는 상반된 차원에서 미조구치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다. 가시와키의 사상과 미의식은 쓰루가와와는 물론 미조구치와도 대립되는 면을 보여준다. 처음에 미조구치가 가시와키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된 것은 신체적 불구로서의 동질감 때문이

15) 田中美代子, 『金閣寺』, 『三島由紀夫』, 角川書店, 1980, p.141.

지만, 엄밀하게 말해 궁극적인 차원에서 가시와키에게 경도된 것은 그가 자기와는 달리 신체적 불구를 그 자신의 적극적인 인식에 의해 무화시켜 버린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시와키는 미조구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나 자신의 존재 조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었어. 그 조건과 화해하고 사이 좋게 지낸다는 것은 패배라고 생각했었지.……안짱다리라는 조건이 간과되고 무시당한다면 나의 존재는 없어져 버린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그리고 불구자가 최후로 빠져드는 함정은 대립상태의 해소가 아니라 대립상태에 대한 전적인 시인이라는 거야. 이래서 불구는 불치라는 거야.

(俺は自分の存在の条件について恥じていた。その条件と和解して、仲良く暮すことは敗北だと思った。……内臓足という条件が、看過され、無視されれば、俺の存在はなくなってしまうという、……そして不具者が最後に陥る罠は、対立状態の解消でなく、対立状態の全的な是認という形で起るのだ。かくて不具は不治なのだ。)

(p102~p104)

가시와키는 자신도 애초에는 미조구치와 같은 심정이었음을 고백하고 이어서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역설한다. 어떤 계기로 자신을 사랑하게 된 유복한 집안에다 미모의 여학생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안짱다리에 대한 의식 때문에 그녀의 사랑에 대한 거부와 순간적인 성적 불능에 이르게 된 절망감을 통하여 자신의 인식이 뒤바뀌게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고백한다.

이때부터 나는 갑자기 정신보다 육체에 관심을 갖게 됐어. 그러나 자신이 순수한 욕망으로 화신할 수는 없었고 다만 그것을 꿈꾸고 있었지.……자네는 육체의 자각을 어떤 질량을 가진 불투명하지만 확고한

‘물건’으로 상상하겠지?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 나 자신이 일개의 육체, 일개의 욕망으로서 완성되는 일은 내가 투명한 것, 보이지 않는 것, 말하자면 바람으로 되는 일이었어. 그러나 금세 안짱다리가 나를 잡아 세우려고 나타나는 거야.……거울을 빌지 않고서는 자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불구라는 것은 언제나 코앞에 내밀어진 거울 같은 거야. 그 거울에 온종일 나를 전신이 비쳐지고 있어. 망각이란 불가능해.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불안이 어린애 장난같이 보여서 견딜 수가 없어. 불안이란 없는 거야. ………불안이나 발판이 전혀 없는 것에서부터 나의 독창적인 생활방식은 시작되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이런 의문에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며 자살까지 하고 있어. 그러나 내게는 이런 의문이 아무 것도 아니야. 안짱다리가 나의 삶의 조건이며, 이유이며, 목적이며, 이상이며,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야.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충분하고도 남아. 도대체 존재의 불안이란 자신이 충분히 존재해 있지 않다는 사치스런 불만에서 싹트는 것이 아닐까?

(このときから、俺には精神よりも、俄かに肉体が関心を呼ぶものになった。しかし自分が純粋な欲望に化身することはできず、ただそれを夢みた。……君は肉体の自覚というとき、或る質量をもった、不透明な、確乎とした「物」に関する自覚を想像するだろう。俺はそうではなかった。俺が一個の肉体、一個の欲望として完成すること、それは俺が、透明なもの、見えないもの、つまり風になることであったのだ。しかし忽ち内臓が俺を引止めにやって来る。……鏡を借りなければ自分が見えないと人は思うだろうが、不具というものは、いつも鼻先につきつけられている鏡なのだ。その鏡に、二六時中、俺の全身が映っている。忘却は不可能だ。だから俺には、世間で云われている不安などというものが、児戯に類して見えて仕方がなかった。不安は、ないのだ。……不安の皆無、足がかりの皆無、そこから俺の独創的な生き方がはじまった。自分は何のために生きているか?こんなことに人は不安を感じて、自殺さえする。俺には何でもない。内臓が俺の生の、条件であり、理由であり、目的であり、理想であり、生それ自身なのだから。存在しているというだけで俺には十分すぎるのだから。そもそも存在の不安とは、自分が十分に存在していないという贅沢な不満から生れるもの

ではないのか。)(p107~p108)

부분만을 인용했음에도 가시와키의 思辨的인 논리 탓으로 인용이 길어졌지만, 가시와키가 자신의 불구라는 약점을 어떻게 무화시키는가 하는 사상적 향방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가시와키는 불공드리러 온 노파를 사술을 써서 범한 일을 자신의 사상적 실천의 결과로서 들려주는데 미조구치에게 그것은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준다. 그 충격은 감명과 같은 것으로서 미조구치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의미를 다시 자각시킬 만큼 세계인식을 온통 뒤바꿔놓는 것이었다. 가시와키는 쓰루가와와는 다른 면에서 미조구치를 인생의 길로 이끌게 된 것이다.

가시와키는 나에게 나의 수치의 소재를 똑똑히 알려주었고 동시에 나를 인생으로 이끌어 준 것이다. 나의 모든 뒤틀리지 못한 감정과 부정한 마음은 그의 말에 의해서 도야되고 일종의 신선한 것이 되었다. 그 때문인지 우리들이 자갈을 밟고 붉은 벽돌 정문 밖으로 나왔을 때, 정면으로 보이는 봄날의 물기를 머금고 있는 히에이 산이 처음으로 대하는 산처럼 신선하게 다가왔다.

(柏木は私に私の恥の在処をはっきりと知らせた。同時に私を人生へ促したのである。私のすべての面伏せな感情、すべての邪まな心は、彼の言葉で以て陶冶されて、一種新鮮なものになった。そのためか、われわれが砂利を踏んで、赤煉瓦の正門を出てきたとき、正面に見える比叡の山は、春日に潤んで、今日はじめて見る山のように現われた。)(p112~p113)

가시와키 역시 ‘인생의 연금술사’로서 ‘뒤쪽에서부터 인생에 도달하는 어두운 통로’를 미조구치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래서 미조구치는 가시와키가 이끄는 대로 그의 방법을 이용하여 인생을 헤쳐나가야만 할 여성

과 관계를 가지려 하나 그때마다 ‘金閣’의 출현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가시와키는 미조구치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삶의 방법과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미조구치를 충분히 매료시켰지만, 근본적으로 가시와키의 사상과 미의식은 미조구치의 지향과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가시와키를 깊이 알수록 깨달은 것이지만, 그는 오래 지속되는 미를 싫어하는 인간이었다. …… 美의 무익함, 美가 우리 몸 속을 통과해서 아무런 흔적도 없는 것, 美가 절대로 아무 것도 변화시키지 않는 것, 가시와키가 사랑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柏木を深く知るにつれてわかったことだが、彼は永保ちする美がきらいなのであった。……美の無益さ、美がわが体内をとおりすぎて跡形もないこと、それが絶対に何もをも変えぬこと、柏木の愛したのはそれだったのだ。)(p.149)

그러니까 가시와키는 미조구치가 영원의 ‘美’에 집착하는 데에 반해 순간적인 ‘美’만을 인정함으로써 아예 ‘美’에 대한 집착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일견 ‘디오니소스적 상태의 황홀’¹⁶⁾을 느끼게 할만큼 매력적인 것이지만, 또한 불구라는 신체적 조건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당당하게 뛰어넘는 신선한 행위로 비쳐지지만, 문제는 그것이 진정한 소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술과 독선에 의한 추악한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조구치가 여성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마다 ‘金閣’이 나타나 방해하는 것은 미조구치의 인식과 근본적 지향이 가시와키적 방법을 거부하고 있다는 심리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가시와키가 스페인풍 저택의 여자를 사술로 유혹하고 유린할 때, 미조구치가 당황하여 자신도 모르게 ‘金閣’으로 도망

16) 박현미,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9, p.29.

쳐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의 마음은 간신히 가라앉으면서 공포도 사라졌다. 내게 있어 아름다움이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인생으로부터 나를 차단하고 보호하고 있었다. “내 인생이 가시와키와 같은 것이라면 부디 보호해 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가시와키가 암시하고 내 앞에서 즉흥적으로 연출해 보인 인생에서는 산다는 것과 파멸한다는 것이 모두 동일한 의미였다. 그 인생에는 자연스러움도, ‘金閣’과 같은 아름다움도 없어서 일종의 고통스러운 경련에 지나지 않았다.

(私の心は和み、ようようのこと恐怖は衰えた。私にとっての美というものは、こういう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それは人生から私を遮断し、人生から私を護っていた。『私の人生が柏木のようなものだったら、どうかお護り下さい。私にはとても耐えきれそうもないから』と私は殆んど祈った。柏木が暗示し、私の前に即座に演じてみせた人生では、生きることと破滅することが同じ意味をしか持っていなかった。その人生には自然さも欠けていれば、金閣のような構造の美しさも欠けており、いわば痛ましい痙攣の一種に他ならなかった。)(p.120)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조구치에게 ‘金閣’이 단순히 ‘美’의 극치로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절제와 윤리, 도덕으로 대변되는’¹⁷⁾ 존재라는 점과 함께 미조구치가 지향하는 인생은 역지로 꾸미고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한 것이라는 점이다.

미조구치와 가시와키의 대립된 관념은 현실로부터 소외당하고 고립된 상태를 받아들이는 각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데, 불구라는 조건을 가시와키는 생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데 반하여 미조구치는 생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장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¹⁸⁾ 다시 말해 가시와키는 불구

17) 박현미, 앞글과 같음.

를 위계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미조구치가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장애를 포용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세계이다.

그러나 미조구치는 한편으로 가시와키의 세계에 빠지고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세계로부터 ‘金閣’이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이율배반적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그래서 그는 金閣을 향해서 ‘인생으로부터 나를 차단하고 보호할’것을 기원하면서, 여성과의 관계에 실패했을 때 “金閣은 왜 나를 보호하려 하나?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나를 인생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 하나?”하고 저주를 보내기도 하는 것이다. 가시와키는 “세계를 변모시키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다”라고 한데 대해 미조구치는 처음에는 긍정과 동의를 표하다가 나중에 가시와키의 인식이 허구라는 점을 깨닫고 얼핏 적극적 행동으로 보였던 것이 사술에 의한 가짜 행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미조구치의 방황과 갈등을 현저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미조구치가 나름대로 확고하게 가졌던 미의식의 혼란을 반영하는 것인데, 가시와키의 영향으로 인하여 인생에 접근하는 僞惡的 통로를 알게 됨으로써 스스로의 관념 속에서 ‘美’와 인생과의 대립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미조구치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여성과 동일시되는데 이것은 그가 인생은 쾌락적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말해 주며 반면에 그와 달리 ‘美’란 그러한 쾌락적 요소가 배제된 숭고한 절대적 가치로 여겨지고 있음을 뜻한다.

18) 진용진, 『「금각사」에 나타난 미의식의 흐름』, 同日語文研究 제8집, 1993, p.155.

4. 美意識의 解體와 새로운 美的 形式의 發見

공습에 의해 金閣이 불타 없어짐으로써 金閣과의 일체를 꿈꿨던 미조구치의 바람은 패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버팀목을 모색하던 그에게 가시와키의 영향력은 긍정과 부정을 떠나서 대단히 심각한 것이었다. 가시와키를 통해서 영원의 아름다움이 아닌 순간의 아름다움을 자각하게 되고, 그것에서 살아있는 관능을 느끼며 인생에의 참여를 시도해 보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시도는 金閣의 개입으로 번번이 실패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미조구치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남선사에서 우이코의 화신으로 여겨질 만큼 황홀한 감동으로 목격했던 꽃꽂이 선생과의 관계에서 그녀의 유방이 금각으로 변모하는 환상에 의해 실패하게 되자 金閣을 향하여 “언젠가는 너를 지배하고 말 테다. 두 번 다시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너를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말 테다.” 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도 그러한 적극적 의지의 반영일 것이다. 그가 가시와키의 가르침에 의해 통소의 음악을 알게 되고 그 음악에 심취하게 되는 것은 金閣과는 다른 순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적 몸짓이라 하겠다. 음악이야말로 강렬한 아름다움으로 순간에 타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大里恭三郎에 의하면 ‘음악은 <性>이나 <행동>의 비유’¹⁹⁾라고 하는데 미조구치가 갖는 여성에 대한 집착과 음악에의 심취가 동질의 것이며 양쪽 모두에서 그가 관능미를 자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지적이라 하겠다. 결국 미조구치에게 인생에의 참여는 관능적 미의 소유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번번이 실패하는 것은 선형적

19) 大里恭三郎, 『「金閣寺」論』, 常葉国文 10号, 1985, p.45.

으로 인식된 金閣의 절대미의 척도에 의하여 방해받기 때문인 것이다. 상징적이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다음의 대목을 좀 길지만 살펴보기로 하자. 미조구치가 어느 날 국화꽃에 찾아든 벌의 행동을 관찰하는 대목이다.

나는 벌의 눈이 되어 관찰하였다. 국화는 한 점의 티도 없는 노랗고 단정한 화판을 벌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자그마한 金閣처럼 아름다웠고 완전했다. 그러나 金閣으로 변모하는 일은 없었으며, 단지 국화꽃 한 송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 그것은 아낌없는 국화 한 송이었다. 아무런 형이상학적인 것의 암시도 내포하지 않는 하나의 형태에 불과했다. 그것은 존재의 절도를 유지함으로써 넘칠 듯한 매력을 발산하면서 꿀벌의 욕망에 어울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형태도 없이 날아다니며 힘차게 움직이는 욕망 앞에 이렇게 대상으로서 형태 속에 몸을 감춘 채 숨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 형태는 서서히 희미해져 가고 찢어질 듯하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다. 국화의 단정한 형태는 꿀벌의 욕망을 분떠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 아름다움 자체가 예감을 향해서 꽃피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삶 가운데서 형태의 의미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다. 그 형태야말로 형상 없이 유동하는 생의 주형(鑄型)이며, 동시에 형상이 없는 비상은 이 세상 모든 형태의 주형인 것이다.

꿀벌은 꽃 속 가장 깊숙이 파고 들어가 꽃가루에 묻히고 고요함 속에 몸을 가라앉힌다. 꿀벌을 영접한 국화꽃은 자신이 노랗고 호화로운 갑옷을 입은 벌처럼 당장에라도 줄기를 떠나 날아갈 듯이 몸을 파르르 떨고 있다.

나는 이 현란한 빛과 그 빛 아래서 행해지는 결합을 보며 현기증을 느꼈다. 문득 벌의 눈을 떠나서 나의 눈으로 되돌아왔다고 생각되자, 금각의 눈과 같은 위치에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벌의 눈인 것을 그만두고 나 자신의 눈으로 되돌아온 것과 같이 삶이 나에게 다가오는 찰나, 나는 나의 눈인 것을 그만두고 금각의 눈을 나의 것으로 해버린다. 그때 바로 나와 삶의 사이에 금각이 나타나는 것이다.

(私は蜂の目になって見ようとした。菊は一点の瑕瑾もない黄いろい端正な花卉をひろげていた。それは正に小さな金閣のように美しく、金閣のように完全だったが、決して金閣に変貌することはなく、夏菊の花の一輪にとどまっていた。そうだ、それは確乎たる菊、一個の花、何ら形而上的なものの暗示を含まぬ一つの形態にとどまっていた。それはこのように存在の節度を保つことにより、溢れるばかりの魅惑を放ち、蜜蜂の欲望にふさわしいものになっていた。形のない、飛翔し、流れ、力動する欲望の前に、こうして対象としての形態に身をひそめて息づいていることは、何という神秘だろう！形態は徐々に稀薄になり、破られそうになり、おのき顛えている。それもその筈、菊の端正な形態は、蜜蜂の欲望をなぞって作られたものであり、その美しさ自体が、予感に向けて花ひらいたものなのだから、今こそは、生の中で形態の意味がかがやく瞬間なのだ。形こそは、形のない流動する生の鑄型であり、同時に、形のない生の飛翔は、この世のあらゆる形態の鑄型なのだ。

蜜蜂は かくて花の奥深く突き進み、花粉にまみれ、酩酊に身を沈めた。蜜蜂を迎え入れた夏菊の花が、それ自身、黄いろい豪華な鎧を着けた蜂のようになって、今にも茅を離れて飛び翔とうとするかのように、はげしく身をゆすぶるのを私は見た。

私はほとんど光りと、光りの下に行われているこの営みとに眩暈を感じた。ふとして、又、蜂の目を離れて私の目に還ったとき、これを眺めている私の目が、丁度金閣の目の位置にあるのを思った。それはこうである。私が蜂の目であることをやめて私の目に還ったように、生が私に迫ってくる刹那、私は私の目であることをやめて、金閣の目をわがものにしてしまう。そのとき正に、私と生との間に金閣が現われるのだ、と。)

(p.168~p169)

꿀벌과 국화의 관계의 상징은 명백하게 섹스의 이미지이다. 미조구치는 이 관찰을 통하여 자신이 왜 불능인가를 냉철히 깨닫게 된다. 그것은 그가 여자를 상대했을 때 행위자가 아닌 인식자로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여자 앞에서 단지 '보는'자일 뿐이다. 그럼으로써 그는 스스로의 육체와 욕망을 잃어버리고 있다. 국화에 내려앉은 꿀벌이 행위자인 것에 대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미조구치는 인식자였지만, 그는 여자를 대

할 때에도 자신이 꿀벌의 위치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고 金閣의 눈, 즉 그의 뇌리 속에 굳게 박혀있는 심미안을 가지고 대응했던 것이다.²⁰⁾ 그는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확연하게 깨달은 것이다. 미조구치가 가시와키의 ‘세계를 변모시키는 것은 인식’이라는 주장에 반발하여 행위만이 세계를 변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미조구치가 가시와키의 사술을 혐오하고 그의 사상을 부정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시와키가 미친 영향력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순간의 아름다움, 관능미에 대한 자각이며 그것을 통한 인생에의 참여 의지라고 하겠다.

하지만 미조구치는 그러한 자각과 참여의지를 강렬하게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그 세계로 빠져들 수가 없었다. 그것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金閣’의 개입 때문으로서 말을 바꾸면 미조구치가 가졌던 절대미에의 환상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조구치는 심한 정신적 방황에 빠지게 되는데, 더군다나 순수한 양화의 세계로 인식되었던 쓰루가와의 갑작스런 죽음의 충격, 그리고 나중에 그가 미조구치 몰래 가시와키에게 마음을 기대었던 사실을 알고 나서의 배신감에 자신의 혼란을 주체하지 못하여 결국 절에서 도주하여 출분 행각을 하게 된다. 미조구치 스스로는 자신의 출분 동기가 노사가 자신을 鹿院寺의 후계자의 자리를 박탈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작품 전체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일부러 만들어낸 거짓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미조구치는 이미 학교도 자주 빼먹고 있었고 노사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미움 받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극심한 정신적 혼란과 좌절이 낳은 방황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미조구치는 출분(出奔)을 하여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서부 일본해

20) 大里恭三郎, 『「金閣寺」論』, 常葉叢文 10号, 1985, p.45.

의 기슭에서 金閣을 불질러 버려야겠다는 상념에 사로잡힌다. 그것은 거의 충동적으로 일어난 상념이었지만 미조구치에게는 이후 金閣 방화가 지배적인 화두로 자리잡게 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된다.

미조구치의 출분은 아마도 자신을 방기하여 무화시키려는데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가 지향한 절대미인 金閣의 세계에도 수용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인생의 관능미에 대해서도 참여되지 못한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걸리적거렸을 것이다. 그는 무목적적이고 무의미한 행각을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나에게서 오직 도달하려는 용기, 거의 부도덕한 용기가 싹트고 있었다.’ 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거의 자기 파괴의 욕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그가 자신의 ‘온갖 불행과 암울한 사상의 원천’이며 ‘추악함과 힘의 원천’이었던 서부 일본해를 보며 金閣방화의 상념에 빠지는 것은 뒤집어 보면 金閣을 없애으로써 자신의 불행과 암울한 사상의 원천 그리고 추악함과 힘의 원천을 없애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고향의 유년 시절에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금각미에 미조구치 자신이 전 인생을 지배받아왔음을 뜻하며 金閣을 방화한다는 것은 그러한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적 열망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한 주어진 인식에 의해 얽매어왔던, 그래서 무기력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에 의한 행위로서 뒤바꿔보겠다는 심리적 결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는도 연관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고정관념이 되었던 절대미인,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인식의 방해물인 金閣을 부정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의 극단적 행위가 방화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아직까지 미조구치의 의식 속에 뿌리를 틀고 있었던 미의식을 해체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단순히 美에 대한 인식 자체만을 바꾼다고 해서 이미 굳건하게 자리잡은 미의식이 소멸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미의식의 뿌리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미망을 걷어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미조구치는 金閣만을 불태우지 않고 자신이 金閣과 함께 죽으려고 했을까? 그것은 金閣이 미조구치의 삶의 모든 근원이었고 궁극적 지향이었기에 金閣이 사라지면 자신의 삶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모순울처럼 느껴지지만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신을 억압하는 미망을 제거해야만이 참 자기를 찾을 수 있는데 그 미망을 제거하는 것은 곧 자신을 버려야만이 가능한 것과 같다.

그러나 미조구치는 실제 金閣을 방화하러 갔다가 金閣의 새로운 美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金閣이 완결된 미가 아니라 불안과 허무의 징조로 이어진 美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세부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가 불안으로 꼭 차있었다. 그것은 완전한 것을 꿈꾸면서 완결을 모른 채 다음의 아름다움, 미지의 아름다움으로 충동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징조는 징조로 이어져 이곳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 하나의 미의 징조가 금각의 주제를 이루었다. 그러한 징조는 허무의 징조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 세부의 아름다움의 未完에는 자연히 허무의 징조를 함유하게 되었으며, 목조의 가늘고 섬세한 이 건축은 영락이 바람에 흔들거리는 것처럼 허무의 예감에 떨고 있었다

(細部の美はそれ自体不安に充たされてゐた。それは完全を夢みながら完結を夢みながら完結を知らず、次の美、未知の美へとそそのかれてゐた。そして予兆は予兆につながり、一つ一つののここには存在しない美の予兆が、いはば金閣の主題をなした。さうした予兆は、虚無の兆だったのである、
虚無がこの美の構造だったので。そこで美のこれらの細部の未完には、おのづと虚

無の予兆が含まれることになり、木割の細い繊細なこの建築は瓔珞が風にふるへるやうに、虚無の予感に慄へてゐた。)(p.267)

아름다움이 허무와 불안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니! 미조구치가 절대적이고도 완결된 美로 생각해 왔던 金閣의 아름다움도 결국은 미완의 것이었고 그 미완으로 인하여 허무와 불안의 징조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미조구치에게 있어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가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계기로 미조구치의 미의식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열리기 때문이다. 미조구치는 이로 인해 金閣 방화 자체도 덧없고 허망한 것을 깨닫고 방화를 포기하려고 까지 한다.



‘행위’ 그 자체는 완전히 꿈꾸어지고, 내가 그 꿈속에서 완전히 살아본 이상, 그러고도 행위를 감행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이미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닌가.

가시와키가 한 말은 참으로 맞는 말이다. 세계를 변하게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완전하게 행위를 모방하려고 하는 인식도 있다. 나의 인식은 이런 종류의 것이었다. 그리고 행위를 정말로 무효로 만드는 것도 이런 종류의 인식이다. 그리고 보면 나의 오랜 동안의 용의주도한 준비는 오로지 행위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최후의 인식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가

(『行為』 そのものは完全に夢みられ、私とその夢を完全に生きた以上、この上行為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か。 もはやそれは無駄事ではあるまいか。

柏木の言ったことはおそらく本当だ。 世界を変へるのは行為ではなくて認識だと彼は言った。そしてぎりぎりまで行為を模倣しようとする認識もあるのだ。私の認識はこの種のものだった。そして行為を本当に無効にするのもこの認識なのだ。してみると

私の永い周到な準備は、ひとへに、行為をしなくてもよいといふ最後の認識のためではなかったか。)(p268~p269)

이 대목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미조구치로서는 다시 한번 변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변전은 인식에서 행위로, 다시 행위에서 인식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중의 인식은 먼저의 인식과는 현저하게 다른 것으로써 앞의 인식이 아버지 또는 金閣이라는 인식의 방해물에 의해 그냥 주입되고 맹목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뒤의 것은 스스로가 대상과 맞닥뜨림으로써 얻어진, 또는 금기에 대한 위반의 행위를 통해 얻어진 참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조구치는 결국 金閣에 방화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임제록(臨濟錄)》²¹⁾ <시중장>의 유명한 구절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상을 만나면 조상을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이고, 이때야 비로소 해탈을 얻을 것이로다, 어떤 것에도 구애되지 않고 깨달음과 빠져남이 자유재하리라.’라는 말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패전 뒤에 노사가 강론한 ‘南泉斬猫’²²⁾의 설법과 연관이 있다. 한마디로 자아의 迷妄을 끊고 妄念 妄想의 근원을 자르는 것만이 해탈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다.

물론 미조구치가 金閣에 방화를 하는 것을 해탈을 얻고자 해서라고는

21) 唐의 임제의현(臨濟義玄)의 語錄. 원명은 《진주임제혜조선사어록(鎭州臨濟慧照禪師語錄)》이라고 함. 법사(法嗣) 삼성혜연(三聖慧然)이 편집하였다.

문장이 명쾌하고, 착상이 뛰어나 선록(禪錄)중의 왕이라고 함.

22) 禪問에 남전참묘(南泉斬猫)라는 화두가 있다. 남전보원선사에서 회상(會上)에서 어느 날 수좌가 키우던 고양이를 놓고 시비가 생겨 동서승당의 5백납자(納子·중)가 나와 소동이 일어났다. 외출에서 돌아오던 남전화상이 이를 보자 고양이를 잡아들고 대중에게 말했다. “대중들이 도를 터득하면 이를 살리 것이요, 도를 터득하지 못하면 이를 참(斬)할 것이다.” 그러나 대중이 아무말 못하자 계도(戒刀)를 꺼내 고양이를 목을 치고 말았다. 시비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고양이의 목을 친 남전화상의 무서운 결단이었음.

할 수가 없다. 오히려 그로서는 자신이 새로이 깨달은 美의 인식 자체도 또 다른 미망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일었거나 아니면 자신이 집착해 왔던 모든 인식이 무화됨으로써 더 깊은 허망함을 느낀 것은 아니었을까. 그것이 미조구치로 하여금 金閣과 함께 불타 없어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변한 게 아니었을까. 애초에 미조구치는 金閣에 방화를 한 후에 칼이나 수면제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金閣과 함께 불타 없어지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색다른 행위에 속할 것이다. 작품 속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것은 아마도 그러한 허망함의 역작용으로, 그가 오래 지향해 왔던 숭고한 절대미와 인생에의 참여 갈망에서 획득된 순간적 관능미와의合一을 이루고자 한 최후의 열망으로 판단된다. 森本和夫에 의하면 그래서 수행된 일치는 절대와 상대와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다시 한 개의 존재로 化하여 美의 또다른 형식이 된다.²³⁾ 무의식적으로 미조구치는 자기 나름의 새로운 미적 형식을 창출하고자 한 셈이 된다.

그러나 미조구치는 어느 순간 그것에서도 거부당하고 있다는 의식이 들어 정신없이 도망쳐 나오고 불타는 金閣을 바라보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은 느닷없는 결말이라서 당혹스럽지만, 그래서 小林秀雄을 비롯한 많은 논자들이 이 작품의 구조적 일탈을 지적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것 또한 미조구치가 진정한 인식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자한 태도로 읽혀질 수 있기도 한 것이다. 왜냐하면 미조구치가 金閣과 함께 분사한다면 그것은 그 자신에게는 장렬한 행위의 실현일지 모르지만 그 행위 자체의 의미를 인식할 주체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앞에서 그가 모든 것이 ‘최후의 인식’에 대한 성찰을 보인 것이 이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23) 森本和夫, 『金閣寺をめぐる』, 『三島由紀夫』,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有精堂, 1979, p.54.

IV. 結 論

지금까지 필자는 『金閣寺』에 드러난 미의식을 살펴보았다. 本稿에서는 작가나 사회·역사적 상황의 작품 외적 조건을 철저히 배제하고 작품의 내적 흐름만을 좇아 내재적인 접근법에 의하여 『金閣寺』의 미의식을 분석한 것이다. 순수하게 작품의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인물과 사건과의 연계성 안에서 주인공이 갖는 미의식의 형성과정을 주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인공 미조구치에게 싹튼 처음의 미의식은 아버지의 가르침과 주입에 의한 것이다. 즉 그것은 스스로가 대상을 감각적으로 체험함으로써 획득한 미의식이 아니라 언어에 의한 관념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金閣이라는 글자, 그것이 주는 음운의 울림, 금빛 이미지 등에 의해서 막연하지만 절대성을 띠고 부여된 미의식이 미조구치의 유년에 각인된 미적 관념이었다. 그래서 미조구치에게는 그러한 관념이 현실적으로 투영되어 나타나는 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모두 금빛 찬란한 모습으로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유년 시절의 미조구치에게 있어서 金閣은 절대미의 상징으로서 말더듬이라는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밝은 미래에 대한 표상과 동격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다. 하지만 그것은 심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기에 미조구치의 미의식은 아직 그 구체성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미조구치의 미의식이 나뉠대로의 자각에 의해 구체성을 갖게 된 것은 우이코 사건을 통해서이다. 우이코를 통해서 미조구치는 자기보존과 자기방기의 이중적 갈등 속에서 세계를 거부하는 美를 충격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우이코를 통해서 얻어진 美의식은 오랜동안 미조구치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것은 숭고함과 관능성이 어우러진 특별한 것이었다. 우이코는 한편 그녀의 숭고한 행위 때문에 金鬘의 절대성과 비견되지만, 반면에 우이코의 배신으로 美가 현실과 대립되어 범접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 현실에도 삼투될 수 있다는 막연한 느낌을 갖게 해주었다. 그것은 금기에 대한 위반의 성격을 띤 것으로서 미조구치에게 美가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의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었다고 할 것이다. 우이코사건은 미조구치가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美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일정하게 확립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제가 되어 金鬘과 함께 생활하게 된 미조구치는 쓰루가와와 가시와키를 알게 되면서 미의식의 혼란과 갈등을 겪는다. 쓰루가와와 밝은 세계에 대한 동경을 가지면서도 자신의 장애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위선의 양가감정을 갖게 되고 그것은 공습으로 金鬘이 불타 없어지기를 열망하는 이상심리로 바뀌게 된다. 그것은 美, 또는 밝은 세계에 대한 열망을 가지면서도 자신은 그 세계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자괴감의 역작용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시와키에게서 세계를 변모시키는 것은 인식이라는 것을 배우며 그가 자신의 안짱다리의 결함을 무화시키며 현실에 참여하는 방법에 감탄과 경멸의 이중적 감정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가 이끄는 대로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인생에의 참여를 꿈꾸게 되나 절대미이면서 윤리와 절제의 상징인 金鬘의 개입으로 인해 좌절되고 金鬘에 대한 저주의 마음을 품게 된다. 그것은 곧 金鬘을 지배하고 소유하겠다는 욕망으로 발현된다. 쓰루가와와 가시와키를 통해 미조구치가 새로이 깨닫게 된 美는 순간의 아름다움이었다. 그래서 미조구치는 절대이면서 영원의 美인 金鬘과 인생의 순간적 관능미 사이에서 방황하게 된다.

그러한 방향은 미조구치로 하여금 출분의 계기가 되고, 출분을 통하여 그는 금각방화를 결심하게 된다. 금각방화는 자신의 집착의 근원인 미망에 대한 제거의 의미를 띤다. 그러나 방화하러 간 金閣에서 그는 金閣의 美가 절대적으로 완결된 美가 아니라 불안과 허무의 바탕 위에 세워진 美라는 것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고, 美의 허망함을 깨닫는다. 기존의 미의식이 해체되고 새로운 미적 형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허망함이 오히려 그가 갈구해왔던 美에 대한 새로운 집착을 낳게 되고 金閣과 함께 분사하고자 방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순간의 美와 영원의 美의合一을 꿈꾼 것으로 해석되는 바, 상대적 세계와 절대적 세계의 일치를 몸으로 구현하고자 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미조구치는 살아남는데, 그것은 美라는 것은 인식주체가 없는 한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에, 최후의 인식자로서 불타는 금각미의 장렬함을 확인하고자 하는 태도의 발현으로 읽혀지는 것이다.

이상 지금까지의 논의를 대략 요약해 보았다. 본고의 논의는 텍스트 자체를 충실하게 따라간 이점과 주인공이 추구한 美의 본질과, 한 문제적 인간이 어떻게 미의식을 형성해가느냐 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金閣寺』의 주제의 핵심을 도출한 의의가 있으나 三島의 여타의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美의식과의 관련을 살피지 않은 점과 전후 일본 사회에 있어 三島의 특이한 행각과 극우적 파시즘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그것들은 三島문학의 이해에 중요한 문제이지만 본고가 의도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추후의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참고문헌

1. 【單行本】

- 게오르크 루카치,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 심설당, 1985.
- 요하네스 헤센, 이강조 옮김, 『인식론』, 서광사, 1986.
- 조르주 바타이유, 조한경 역, 『에로티즘』, 민음사, 1989.
- 미시마 유키오, 서기원 옮김, 『금각사』, 청림출판, 2000.
- 김윤식, 「문학적 죽음과 정치적 죽음」, 『한일 문학의 관련 양상』, 일지사, 1974.
- 光榮堯夫, 『三島由紀夫論』, 冲積舎, 2000.
- 宮崎正弘, 『三島由紀夫はいかにして日本回帰したのか』, 清流出版, 2000.
- 服部俊, 『三島由紀夫の復活』, 夏目書房, 2000.
- 三島由紀夫, 『仮面の告白』, 新潮社, 2001.
- _____, 『金閣寺』, 新潮社, 2001.
- 松浦和夫, 『三島由紀夫』, 近代文芸社, 2000.
- 竹原崇雄, 『三島由紀夫・金閣寺の世界』, 風間書房, 2000.
- 板坂 剛, 『極説・三島由紀夫』, 夏目書房, 1997.

2. 【論文・雑誌】

- 김삼남, 三島由紀夫의 『金閣寺』에 대한 作品 分析 研究 : 美와 滅亡의 一致를 中心으로, 建国大学校, 1995.

- 이연로, 「三島由紀夫 『金閣寺』 考察」, 韓國外國語大學校, 1991.
- 주세종, 『金閣寺』의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3.
- 진용진, 「금각사」에 나타난 미의식의 흐름, 同日語文研究 제8집, 1993.
- 姜福連, 三島由紀夫の美意識に関する考察 : 『金閣寺』を中心として,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1986.
- 朴現美, 「미시마유키오(三島由紀夫)의 『금각사』(金閣寺)論」,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9.
- 張洪圭, 三島由紀夫의 『金閣寺』론, 일본어문학회, 2000.
- 黃惠經, 『金閣寺에 나타난 美意識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1989.
- 磯田光一, 『三島由紀夫 - 日本文學全集82』, 集英社, 1983.
- 大里恭三郎, 「『金閣寺』論」, 『国文学年次別論文集』, 學術文獻刊行會,
1985.
- 武田勝彦, 『金閣寺について』, 学灯社, 1966.
- 福島章, 「三島由紀夫の幼児期の対象關係」, 『国文学年次別論文集』,
學術文獻刊行會, 1988.
- 三枝康高, 「『金閣寺』 作品分析」, 『三島由紀夫』, 有精堂, 1975.
- 森本和夫, 「金閣寺をめぐって」, 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 有精堂, 1984.
- 西本匡亮, 「『金閣寺』の世界」, 『国文学年次別論文集』, 學術文獻刊行
會, 1985.
- 先田進, 「三島由紀夫と古典主義」, 『国文学年次別論文集』, 學術文獻刊行會,
1982.
- 小林裕二, 「『金閣寺』試解」, 『国文学年次別論文集』, 學術文獻刊行
會, 1985.
- 遠藤伸治, 「『金閣寺』論」, 『国文学年次別論文集』, 學術文獻刊行會, 1985.

有元伸子, 「『金閣寺』論」, 『国文学年次別論文集』, 学術文献刊行会,
1987.

秋田朋子, 「三島『金閣寺』論」, 『国文学年次別論文集』, 学術文献刊行会,
1988.

喜志哲雄, 「劇的人間としての三島由紀夫」, 『国文学』, 7月号, 1982.



《Abstract》

Misima Yukio's Research of 『Geumgaksa』

- the formation of awareness of beauty of main character-

Park, You-choon

Japanes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This thesis is purposed to bring light on awareness of beauty in 『Geumgaksa』, the representative work of Misima Yukio. Along the structure of characters and events, we can research how the awareness of beauty forms and changes, and We can reach ultimate theme.

The main character Mijoguchi is congenital stutter, His awareness of beauty begins at the point that When his father said “Nothing is more beautiful than Geumgak in the world”. That i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3.

nothing to do with his personal experience, and has been formed by his thought. But the thought dominates his consciousness as the absolute beauty. And it can make the main character have both adoration and feeling of isolation at the same time.

The main character have established his own concrete awareness of beauty when he met the woman called Uiko.

Because of Uiko he can find out both arrogant beauty that rejects the world and voluptuous beauty that causes desire. When she betrayed him he could find out that he could come into that world.

Through Zzurugawa's aid he has adored bright world but he became hypocritical because of inferiority complex. So he anxious that Geumgak would be burnt out in an air attack but he was disappointed that it came to nothing. When he met Gasiwaki, he dreamed to join the life and tried to have physical relations with women. But everytime it came to nothing because of disturbance of Geumgak.

This means the symbol of control or ethics. So he cursed Geumgak. It means he is suffering from confusion and trouble.

The main character was disappointed. So he decided to set fire to Geumgak. Through this he wanted to get out of the absolute beauty that have depressed him and at the same time he wanted united with it.

He showed the paradoxical attitude. He wanted to possess the beauty by act not awareness. On the other hand it means dissolution

of the awareness of beauty. But he realized that the beauty of Geumgak consists of signs of anxious and nihility. And he gets real awareness of beauty. It regarded as the discovery of new type of beauty.

After all Geumgaksa, is the work that researches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real awareness of beauty .

It shows how one person who has troubles acquires awareness of beauty and how it changes through encounters with real objects.

